

교회의 고령화 속도, 일반 사회보다 훨씬 빨라

교회 사회봉사 영역 중 ‘노인돌봄’ 가장 시급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0년 11%를 기록한 뒤 2017년 고령사회(14%)에 들어섰다. 이후 7년 만인 2024년, 드디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인 1000만 명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OECD 34개국의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단 7년 만에 도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향후 10년 후인 2035년이면 고령 인구(65세 인구) 비중이 30%, 207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지용근 대표)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리포터에 따르면 이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응 역시 그만큼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화 현상은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 관련 정책·서비스 및 돌봄 등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의료 및 요양,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특히 노인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세계적 흐름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이 개인, 국가, 사회 차원의 공적 돌봄체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실제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노년의 돌봄 제공자로 가족보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비(비)가족을 더 많이 선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국민 대다수(88%)는 ‘부담된다’고 답해, 자녀 세대들의 돌봄 부담 인식은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소규모 재정사업과 결합된 구조로 인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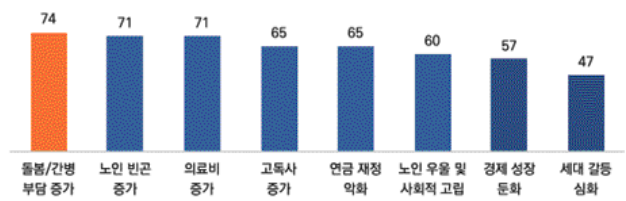
■ 초고령사회 진입,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4%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해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 전망이 높았는데 ‘18~29세’는 89%, ‘30대’ 87%가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으며, 이후 연령대에서는 점차 감소해 ‘70세 이상’에서는 58%로 나타났다.

■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고민, ‘돌봄/간병’

초고령사회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를 살펴본 결과, ‘돌봄/간병 부담 증가’가 74%로 가장 높은 응답률(‘매우 우려된다’ 기준)을 기록했다. 이어 ‘노인 빈곤 증가’, ‘의료비 증가’, ‘고독사 증가’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돌봄/간병 부담 증가’는 모든 세대에서 70% 이상이 ‘매우 우려된다’고 응답해, 세대 구분 없이 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핵심 과제이자 고민임을 보여준다(20대 72%, 30대 72%, 40대 75%, 50대 78%, 60대 76%, 70세 이상 71%).

[그림] 초고령사회 우려점 (‘매우 우려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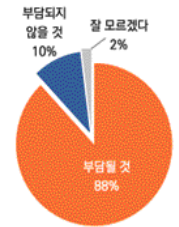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의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가 ‘부담될 것’이라고 답해, 자녀 세대의 돌봄 부담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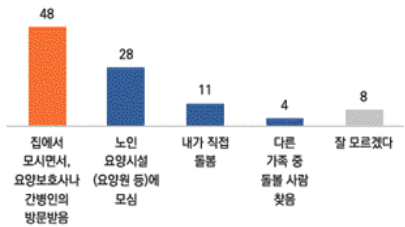
부모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집에서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방문을 받는 방식’(48%)이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모심’ 28%, ‘내가 직접 돌봄’ 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통일되고 표준화된 제도 모델은 발표되지 않았다. 재정확보, 전문인력 수급,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는 일당 12만~15만원, 월 360만~450만원 수준이기에 중산계층도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일당 2만원에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의원과 요양병원에 전면적으로 도입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전문 간병인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림]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 정도*



[그림] 부모 돌봄 필요시 돌봄 방식 (%)



■ 교회의 고령화 속도, 일반 사회보다 훨씬 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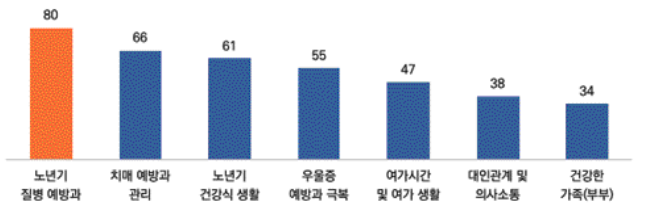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기독교인과 일반국민의 연령 분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대부터 50대까지는 ‘일반국민’의 비중이 ‘기독교인’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60대 이상 비중은 기독교인이 49%로 일반국민(32%)보다 17%p 더 높았다. 이는 교회의 고령화 수준이 우리 사회보다 더 높고, 그 속도 또한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노인 돌봄은 교회 사회봉사 영역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역으로 평가됐는데, 성도와 목회자 각각 71%, 82%가 이에 공감했다.

고령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일까? 65세 이상 교인에게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을 묻는 결과,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매 예방과 관리’ 66%, ‘노년기 건강식 생활’ 61%, ‘우울증 예방과 극복’ 55%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노년기 건강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 (65세 이상 교인, 중복응답, 상위 7개, %)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령교인들의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편인 걸 고려할 때, 교역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교류가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외로운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교회 내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인과 지역 내 비신자 어르신들을 아우르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 칼럼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 무좀, 사타구니 완선

장마철에는 없던 질병에 걸리거나 평소 앓던 병이 악화하기 쉽다. 우선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창궐하기 십상이다. 무좀균은 고온다습하고 피부가 밀폐된 조건에서 잘 번식한다. 신발은 두세 켤레 준비해서 번갈아 신는 것이 좋다. 젖은 신발은 충분히 말린 다음 신어야 한다.

사타구니 양쪽에 생기는 무좀인 ‘완선’은 발에 있던 무좀균이 옮겨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 무좀과 완선은 병변 부위가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항진균제 연고를 한 달 정도 꾸준히 바르면 치료될 수 있다.

염증성 피부 질환인 ‘간찰진’도 습한 날씨에 잘 생긴다. 목의 주름 부위를 비롯해 무릎 뒤, 손·발가락 사이, 엉덩이, 가랑이 등 피부 면이 맞닿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다.

특히 빗물과 접촉한 후 씻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빗물에 섞여 있는 각종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는데 이는 염증 반응으로 이어져 붉은 반점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습하지 않게 관리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우면 약한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좋아질 수 있다.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 속도가 빠르다. 살균 효과가 있는 햇빛의 자외선량이 줄어드는 것도 세균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이질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에 주의해야 한다. 세균은 60도 이하에서 잘 번식한다.

따라서 음식 보관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 60도 이상에서 해야 번식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포도상구균, 바실루스균, 클로스트리디움균의 독소는 가열해도 증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한 즉시 먹는 게 식중독 예방의 최선책이다. 식중독은 대개 복통, 구토, 설사를 동반하며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탈수가 심하다면 수액치료도 고려

해야 하며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고 특히 라면, 피자, 빵 등 밀가루 음식은 복부 가스가 많아져 불편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장마철에는 햇빛량이 줄면서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불면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계절성 불면증은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만성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장마철 불면증을 피하려면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했더라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오전에는 최대한 밝게, 저녁에는 아슬하게 생활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고 샤워한 뒤 따뜻한 차나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자면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도 잠을 들지 못하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 ‘하지불안증후군’도 심해진다. 이 질환 역시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낮에는 편찮다가 잠들기 전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는 듯한, 쭉시거나 따끔거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등 불편함을 느껴 숙면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침에 해를 일찍 보느냐에 따라 숙면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뇌 신경에는 식사·수면 등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는 빛에 의해 조절된다. 이어 아침에 빛을 보지 않으면 진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를 많이 볼 수 없는 장마철에는 햇빛 대신 형광등이나 스탠드를 켜 빛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냉방병도 조심해야 하는데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켜서 실내 온도를 낮춘 뒤 에어컨을 통풍으로 유지하거나 끄고 선풍기를 안면풍으로 틀고 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성구 원장
한사랑병원



총회성결교신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성경 66권 본문 이해와 적용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전도사, 간사) 양성하여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 모집 학과

학 과	입학 자격	비 고
신 학 부	신 학 과(4년)	• 고졸 및 동등 이상의 학력 • 월, 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목 회 학 과(4년)	
	신 학 과(2년)	
사이버학부	신 학 과(4년)	• 본교 수업과 동일 • 매 주 강의 시청
	목 회 학 과(4년)	
	신 학 과(2년)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홈페이지/ www.sts.kr 다운로드 및 우편가능
- 원서접수 : 2025. 7. 14 ~ 2025. 8. 29 16:00까지 본교교무과
- 문의전화 : 02-725-7078 / 070-7132-0083

■ 개설 과목(23년~25년 6월)

과목명	
인간이해와 상담	신약입문(누가복음)
바울서신	소선지서
율기·잠언	사중복음
목회서신	기독교영성과 성결
웨슬레신학	예레미야와 성결
교린도전/후서	요한복음과 성결
이사야서	인문적 성경읽기
성결교회사	창세기와 성결
성경총론	사도행전과 성결
조직신학	출애굽기와 성결
구약입문(신명기)	열왕기와 성결
사무엘서	빌립보서와 성결

■ 제출 서류

- 입학원서, 추천서, 서약서 (소정양식) 각1부
- 고등학교 또는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 편입학은 재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2매 / 전형료 50,000원

■ 특 전

- 신학과(4년), 목회학과(4년)는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학과(2년)는 수료 후, 본 교단 **교육전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학과(2년)는 수료 후, 교회 내 **간사**로 임명받아 섬길 수 있습니다.
- 각종 장학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성결교신학교
S J N G K Y J - T H E O L O G I C A L C O L L E G E